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월 29일 (제1186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죽는 날을 모르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죽는 날을 모르는 게 축복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그러신 것 같다.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후를 예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고 날 것을 미리 안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지. 미리 조심하면 되니까. 그러나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누구나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열린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영생의 세계가,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예비하라는 것이다.

사실 보험을 넣을 때 ‘이거 괜히 넣는 것 아닌가? 돈만 나가는 느낌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것만 안 넣어도 좀 편히 살 텐데.’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났을 때 ‘넣길 잘했다’ 생각한다. 사후를 예비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손해보는 느낌이다. 세상에 좋고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휴일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접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날’에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너무 좋아서!

‘밤새 안녕’이라고 나는 하루가 멀다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러나 섭섭은 할망정 괴롭거나 내 마음이 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 죽는 날을 예비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날을 늘 대비하며 준비하자.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더욱 열심히 준비하자. 늘 말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면 철저하게 성공한다.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하나님께 인정(認定)받는 자가 돼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좌우 측근의 지위를 차지해보려는 야망에 그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간청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복음에 나온다. 이에 다른 제자들이 선수를 치고 나온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을 내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 권력의 이치와 하늘나라의 이치가 전혀 다름을 설명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

숨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무서워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로 멸망한 열왕들의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

다. 더더구나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존 재하지 않았습니 다. 내 손을 통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 었습니 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지경이 되었을지 모릅니 다. 비단 나뿐이 아니습니 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사 문제로 남편에게, 가족 친지들에 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많 습니 다. 비록 그로 인해 이혼을 당했지만 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 고 있는 분도 있습니 다. 직장에서 돼지머



주일4부은사집회에서3년간듣지못하던아이가 목사님의안수를 받고 귀가 열렸다
(1월22일 오후 3시KBS스포츠월드아레나홀)

리라”(막10:43~44). 이러한 설명에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친 제자들의 삶과 기록을 통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목사님은 구정 당일 주일 3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곧 신앙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

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청송을 받은 다윗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은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 가득하던 우상들을 타파하려다 집에서 내쫓겼습니 다. 그러나 나는 타협하지 않았습니 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최우선이었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애썼습니 다. 만일 내가 가족들과 제사 문제를 타협했더라면 오늘의 이시대 목사는 없습니 다. 우리 어머니가 명예권사를 받고 천국에 가시는 일도 없었을 겁니

리에 절하라는 상사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주일 근무를 거부하며 사표를 내는 등, 자신의 영달보다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는 많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나 역시 마음은 아팠지만 내가 잘 가르쳤다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풍성한 복으로 보상받는 간증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이제 또 그들과 함께 주일 4부 은사집회를 부흥시키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3:13~35)

마음과 신앙이 맞으면 우주를 준다 해도 바꾸지 말라

중남미 선교드림팀이 있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는 이현숙 선교사와 라구나, 엑토르, 김성자 전도사, 그리고 국내에서부터 함께하는 한은택 목사와 송초현 전도사입니다. 이들은 척 하면 삼천리요,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임을 알만큼 손발이 맞는 자들로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다윗의 37명 용사와 같은 자들이지요. 우주를 준다 해도 그들과 바꿀까요? No! 그들뿐 아니라 장로들과도 마음이 잘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불협화음 없이 잘 가는 이유입니다.

멀리 가고 싶습니까? 끝까지 잘 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신발이 맞아야 합니다. 명품 신발이면 뭐합니까? 발에 안 맞으면 시장에서 산 운동화만 못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일본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명품구두를 사줬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발뒤꿈치가 다 까졌고, 결국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걸어 다닌 이야기요.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학벌이, 가문이, 인물이 명품이라고 털썩 함께하자고 선택하면 어찌 될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땀이 맞아야 잘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자와 동업해야, 마음이 맞는 자와 결혼해야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고름이 살 안 된다 아파도 짜내야 한다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에 맞지 않자 다른 이를 대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삼상13:14).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13:22).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자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제자 열둘을 세우실 때 기도하신 후에 자기의 원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막3:13~14).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실 때도 마음이 맞는 자끼리 둘씩 내어 보내셨습니다(눅10:1).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재택

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 곧 마음이 하나 된 자들을 백성 위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출18).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9)고 하셨겠습니까? 움막은 그래도 낮지요. 잠언 21장 19절에는 ‘싸우며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

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다릅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다투는 여인’ 대신에 ‘다투는 직원’이나 ‘다투는 동업자’를 넣어보세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싸워서 심령이 상하면 누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잠18:14).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동행했던 조카 롯과 헤어진 겁니다(창13). 지혜롭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출발에 앞서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행15:2).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기로요(행15:37~41). 그럼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갈라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 산으로 갑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바다로 가야 옳지요.

그러나 마음이 안 맞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면 꼭 줄다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팀워크가 잘 돼야 이깁니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마음이 하나 되면 상대를 이겼습니다. 나이 든 어른신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마음이 맞는 자식하고 살아야 오래 살고, 병나지 않습니다. 꼭 장남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딸이 마음에 맞으면 딸하고 사는 겁니다. 둘째 아들하고 마음이 맞으면 둘째 아들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혈압 오르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또한 신앙이 맞아야 잘 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신



총회장 이초석 목사

22:10)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6:14)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와의 동업이나 결혼, 모사나 대업을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휴, 믿게 하면 되지요.”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에서 소와 나귀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지요? 안 믿는 사람이 소요, 믿는 자들이 나귀에 비유된 겁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매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몸체와 힘이 적은 나귀가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지만, 믿는 자들은 절제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취한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당과 아세라 상을 제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는 지속적으로 나라가 강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결혼을 시켰습니다. 또한 정략결혼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그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다 아합은 전사하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사태에 이르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두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19:2).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공동으로 배를 만들어 다시스에서 오빌의 금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그 배가 파선되고 맙니다. 왜요?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와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대하20:37).

숯을 가까이하면 숯검정이 묻게 되어 있고, 생선가게에 오래 있으면 비린내가 옷에 배는 법, 그래서 신명기 7장 3~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시멘트 대리점과 벽돌 공장도 경영한 적이 있는데요. 시멘트를 만들 때 모래에 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마른 후에 깨집니다. 성분이 같아야 시멘트가 강력하더라 말입니다. 신앙이 같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법이거든요. 외줄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전4:11~12).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코스가 아니라 신발 속에 든 작은 돌맹이 하나이듯, 인생이 고된 것은 마음과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명품 신발이라고 무조건 신지 말고,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달려봅시다. 마음과 신앙이 맞는 자와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2008 리먼사태의 교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하 리먼사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기 6개월 전, 외국의 의뢰인으로부터 국내에 투자한 코스닥 등록법인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상황에 처했으니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검토와 재무 상태 실사를 이행하였고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이 대표이사 대주주는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손실을 발생시켜 존속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회사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고, 회계감사인은 오랜 기간 묵인 및 방조하다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고 사임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책팀이 출범하게 되고 공동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결국 상장 유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리먼사태 발발 1개월 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을 특정 투자자에게 일괄 매도하였고, 그들은 주식으로 전환한 후 몇 단계에 걸쳐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량을 매도했지만 최종적으로 회사는 리먼사태로 인하여 파산하고 상장폐지가 되어 그 내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본인은 위 자문을 진행하면서 사주를 압박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관계당국과 감독기관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더 좋지 않다고 간주하였고, 무엇보다 본인과 본인의 의뢰인만 최대규모의 금전적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정하고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종업종의 관계자들 모두가 알게 되고, 특히 전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되었고, 마침내 본인은 도박사가 손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업장을 폐쇄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니 예수님께서 방향을 전환해주셔서 가장 경미한 수준의 대가만 치르고 종결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후 본인은 업계를 완전히 떠났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각종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끊었기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각종 정보가 넘치고 혼란한 시장 환경 속에서 본인과 같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활약은 더욱 맹위를 떨치며 더욱 많은 선풍한 투자자를 손실 구덩이로 끌어들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할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업종, 무엇보다 재무상태를 완벽히 파악하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 여쭙어보며 집행하는 것만이 목적인 바를 이루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임윤석

:: 세상을 보는 창 ::

시선 집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우신 목회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시선이 멈춘 곳이 목회 현장이 되고,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을 사로잡은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 되니 말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라면 섬기는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시선을 고정해서도, 요즘에 이것이 유행한다고 시선을 돌려서도 안 된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자주 질문해야 한다. 시선이 사역의 방향뿐 아니라 사역의 퀄리티(quality)까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에서 대가의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다. 많이 알진 못하지만 감상하다 보면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깊이 바라보고 작품을 이해하려고 뭔가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뭔가 끄는 힘이 그 작품에서 느껴지기 때문일까? 그래서 대중의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작품들은 명

작이 되고, 걸작이 되는 것일 게다. 사람의 시선을 훔치는 일은 작가의 탐과 노력과 깊은 내공이 쌓인 결과다. 작품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명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역 현장은 ‘시선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선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영혼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중심교회 주일4부예배에서 하나님의 소원(딤후2:4)을 보는 것, ‘초대교회’를 보는 것,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실력이 되고 수준이 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4부예배에 모으기 위해 다초점이 아닌 하나의 초점으로 만들고 계신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목회해야 하는 동기가 되고 사역의 전환점이 된다. 한 목회자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움은 시선을 멈추게 하는 파워가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복된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 책을 펴다 ::

주인의식

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만, 집은 아직 전세로 살고 있었다.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갈 기회가 있어 가보니 마룟바닥은 다 까져있고, 벽지에는 애들은 다 컸는데 웬 낙서가 그리 많은지... 내가 친구에게 “집안이 왜 이래? 좀 심하네.” 했더니 친구 왈, “셋 집인데 뭐, 기한 되면 나가려고. 그때까지만 이렇게 살면 돼.” 했다. 주인의식 결여에서 온 현상이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의 인정을 받았다. 그가 보디발이 시키는 일만 해놓고 콧노래 부르며 농땡이 피웠겠는가. 그가 감옥에서 간수가 준 열쇠나 쥐고 다리 꼬고 앉아있었겠는가. 결코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하셨을까? 나는 그 원인을 찾았다. 그는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지만, 자신

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었다. 그래서 애굽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격노하여 애굽사람을 죽인 것이다. 곧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에 둔한, 나이가 80인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슴사상이나 손님사상에 젖어있다. 그래서 누가 일을 시키기 전에는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그냥 두고 나간다. ‘얕아누운 주인이 열 머슴 뒤흔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의 심정으로 일하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절대 농땡이 안 피울 것이고, 절대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대충이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하면 어느 순간 당신이 정말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무당 백사검의 회심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검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곳을 잘헤 첩을 둔 무당이었다. 하루는 곳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 땀을 뻘뻘 흘렸다. 그런데 선교사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선교사가 가고 나니 신이 내려 겨우 곳을 마쳤다. 그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그길로 무당 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우리나라 근대역사에서 대표적인 지식인을 꼽으려면 백락준 박사다. 젊은 백락준이 어느 선교사 집에서 일을 했다.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나무를 패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작을 췌다.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나무를 패면 어떻게 하느냐?’고 선교사가 힐문하자 ‘나무를 패라는 말씀만 들었지, 그 만두라는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백락준이 대답했다. 얼마나 우직한가. 이 선교사는 그 젊은이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젊은이를 신뢰하게 되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그 청년을 미국에 보내 공부할 시키게 된다. 이런 우직함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수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백사검이다. 무당을 그만둔 백사검은 농사를 지었다. 마침 그 선교사는 교회를 건축 중에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자 백사검은 무당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사농은 땅을 팔아 교회에 바쳤다. 그 선교사는 고마운 마음에 그를 교회의 사찰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나무를 좀 패라니까 그 아들이 밤새도록 나무를 팠 것이다. 그 선교사는 감동을 받아 백락준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고, 그는 돌아와 연세대 총장과 문교부장관을 역임한다. 무당 백사검은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는 한마디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등불이 되어 온 가족을 살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임택함 목사

:: 간증 ::

:: 참된 깨달음 ::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광주예수중심교회 담임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 십일조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에 어느 성도가 과수원을 하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간증을 듣고, 담당 교구에 소 농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 심방하여 가르침 받은 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권면하였더니 집사님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소를 팔아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름까지 갓 태어난 송아지가 벌써 6마리나 죽었는데, 평소 한 해에 1~2마리 죽는 것에 비하면 큰 손해였습니다. 집사님이 십일조를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송아지가 한 마리씩 죽어 나갈 때마다 담당 전도사로서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마시다.”라고 믿음의 말을 전하고 집사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집사님은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6마리가 이미 죽었고, 7번째 송아지가 또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집사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죽어가는 돼지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살렸던 총회장 목사님의 간증 설교가 떠올라서 ‘총회장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집사님의 송아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송아지에게 손을 얹을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여 축사 밖에 서서 죽어가는 송아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를 예수 이름으로 살렸던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나게 하시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죽어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송아지에게 손을 얹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총회장 목사님 닮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후, 송아지가 또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담당 조장님과 함께 집사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죽어가는 돼지를 예수 이름으로 살렸던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미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따로 묶어달라고 요청하고, 구두를 신은 그대로 송아지가 있는 축사로 뛰어 들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죽기 직전의 송아지 배에 손을 얹고 주저함 없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송아지는 살아날지이다!”라고 계속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송아지가 몸을 푸르르 털며 벌떡 일어나서 어미소에게 다가가 젖

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며, 사실 전날 수의사가 그 송아지와 또 다른 송아지를 고칠 수 없다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변을 보는 조금 큰 송아지 앞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축사에 들어갈 것도 없이 그 송아지의 눈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피땀 싸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이 송아지도 살아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 송아지 2마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팔았고, 그 후로 송아지가 죽는 일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집과 축사, 더 많은 소와 땅으로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집사님의 송아지가 죽어갈 때 안타깝게 바라만 보았던 저는 마치 야성을 잃은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한 후, 죽어가는 송아지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살아나라고 담대히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망한 것이 일어나며, 축복한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을 수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습니다. 목사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빌4:9),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2023년 포어처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주예수중심교회 김여자 전도사

온유하면 받는 복

그 사람의 됾됨이는 가족에게 물어보면 잘 안다고 한다. 결혼생활 17년 동안 아내가 내게 화를 내면 기다렸다가 아이 달래듯이 화를 풀어줘 크게 싸운 일이 없다. 집안 어른들 모시는 것도 진심인 게 느껴진다. 주위 사람들과 분쟁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험담도 잘하지 않는다. 남편인 내가 봐도 존경스러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아내가 5년 전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에 갔다가 재건축되는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당시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도 아니었고, 재건축이 잘못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들도 많아서 나는 고민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땅을 놓고 작정기도를 시작했는데, 작정기도가 끝날 때쯤 아내가 꿈으로 응답을 받았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재건축 사업 중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인근 부지는 건물도 올리지 못한 곳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집에 무사히 입주해서 살고 있다.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라는 말씀 뒤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5:10)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온유함으로 받는 복이 이 세상의 땅이라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핍박을 받는 복’도 누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2023년을 살아 보리라 결심한다.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 영생에 이르는 길 ::

복권에 당첨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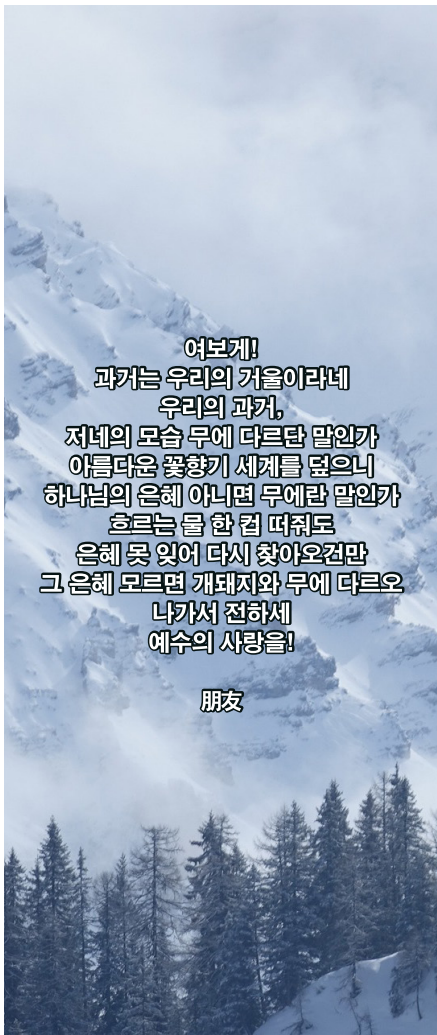
“자! 새해가 되었으니 복권에 당첨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로또복권을 사시고, 번호는 1, 2, 3, 4, 5, 6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만일 이렇게 알려준다면 과연 누가 복권을 살까요? 심리학 용어로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앞에 알려드린 말에서 저 숫자들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순서대로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순서대로 당첨될 확률은 다른 복권번호에 당첨되는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번으로 당첨될 확률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대로 나

온다고 해도 실제로 이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의 기준이 자기 경험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늘 목사님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고, 기도도 열매를 거뒀본 자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죽은 자가 되살아나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다들 본인의 경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기적을 맛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그 경험을 공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경험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줘도 구매하지 않는다면 절대 당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으니, 일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고요? ‘될 때까지’입니다. 복권 당첨번호를 알았다면 ‘사기만 하면’ 반드시 당첨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김대화

realdialog@naver.com



여보게!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라네
우리의 과거,
저네의 모습 무에 다르단 말인가
아름다운 꽃향기 세계를 덮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에란 말인가
흐르는 물 한 컵 떠줘도
은혜 못 잊어 다시 찾아오건만
그 은혜 모르면 개돼지와 무에 다르오
나 가서 전하세
예수의 사랑을!

朋友